

INTERVIEW



김영호 대한지적공사사장 인터뷰

“
방재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Q.1 먼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의 지적제도 발전을 위한 대한지적공사의 최고책임자이신 사장님의 간단한 이력사항을 전국의 방재인에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1954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서울고등학교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남가주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를, 성균관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 1976년 제 1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총무처와 주미 한국대사관,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서 32년 8개월 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 주미 한국대사관 행정참사관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 2국장,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중앙인사위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 행정안전부 제 1차관 등을 역임 하며 국정운영과 조직인사관리 등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 2009년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법률자문을 맡아 자신의 경험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 했습니다.
- 2010년 9월 대한지적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 오랜 숙원이었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1.9.16) 지원과 2030년까지 진행될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지적정보를 활용한 사업다각화를 통하여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2일 국내 유일의 '공간정보연구원' 을 개원해 국가 공간정보산업발전을 견인하고, 공사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Q.2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과 지적정보체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 공사는 최근 미래성장전략을 통해 “국가공간정보산업의 Total Solution Provider로서의 공적기능 강화”라는 미래상을 정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공사의 현황과 만들어가고자 하는 미래모습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공사는 지적측량시장의 개방, 국가공간정보산업의 육성,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강구해야 공익추구와 지속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사의 미래발전 모습에 따른 핵심사업을 재조정하여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국가 전략사업으로서의 국가 공간정보정책의 확대에 따른 공사의 역할과 기능수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공사의 위상강화 및 안정적 경영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발전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공사는 2011년부터 미래성장전략 수립 연구를 통해 ‘국가공간정보산업의 Total Solution Provider’ 라는 미래상을 정립하고 필요 역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재 ‘KCSC 2025 중장기 경영전략 및 사업전략’ 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모습을 미리 예상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지적재조사, 국가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과 연계한 국책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지적 및 공간정보 생산 및 관리의 노하우와 기술을 확보한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여 국가공간정보관리 및 산업 진흥전담기관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사의 사업포트폴리오는 현재 지적측량사업 중심의 사업영역에서 안정적 수익창출과 지속성장을 위해 공간정보 조사관리, 공간정보 종합 컨설팅 사업 등의 영역으로 다양화 될 것입니다.

대한지적공사가 공간정보분야의 Total Solution Provider가 되어가는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Q.3 귀 공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침수흔적도 작성 전담기관으로서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가요?

- 우리공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2006년 6월 1일부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침수흔적도 관련분야 회원”으로 등록되어 침수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통해 침수흔적도를 전담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침수흔적도 작성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도심의 주택가나 농촌의 농경지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침수발생지역의 조사 및 측량과 침수흔적 데이터의 관리 및 갱신, 침수흔적관리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침수로 인한 자연재해를 관리하는 정책자료를 생산하여 국가의 재해방재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사는 전담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전국 185개 시·군·구 지사를 통하여 침수가 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게 현장에서 측량을 수행한 후, 정밀조사를 통하여 침수흔적도 및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침수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침수흔적 데이터를 누적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자료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료를 국가는 물론, 시도, 지자체 및 재해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국가의 재난방재업무에 공공기관으로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Q.4 최근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국가방재의 역할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침수흔적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재해경감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귀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침수흔적도 작성의 역할과 범위는 무엇인가요?

- 정부에서 재해지역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재해경감대책을 수립코자 하는 것은 국격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방향으로 생각하며 미래의 국토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가 기상이변으로 폭우, 가뭄 및 해일 등 각종 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국토 발전이나 각종 개발 계획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 여러 나라들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침수흔적도의 역할은 국토개발, 도시계획수립, 건축 등에 기초적인 자료가 제공됨으로써 침수로 인한 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침수흔적도 작성의 범위는 뉴스나 보도 등을 통해 아시겠지만 수년전부터 지역을 가리지 않고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규칙하게 침수로 재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시가지, 주택지, 농촌지, 산림 등 어느 지역에서나 침수흔적도는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침수흔적도 작성 범위는 주로 주택지나 농경지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침수가 발생하는 전 지역을 범위로 하여야 향후 재해를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정부에서 침수로 인한 재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2006년부터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우리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침수흔적도 작성 실적을 살펴보면 전국 침수면적 대비 약 24% 정도만 작성되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표1 참조)

국가 재난방재를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침수지역 전체에 대해 침수흔적도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침수되는 전체 면적을 조사·측량하고 이의 누적된 자료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 [표1] 전국 침수현황 대비 지적공사 침수흔적도 작성 내역

구분	연도별 침수면적(ha)	지적공사 작성내역(ha)	비고
계	58,822	14,300	24%
2010년	12,925	800	6%
2009년	5,677	2,300	40%
2008년	602	1,500	이전 침수 지역 포함
2007년	4,859	2,400	49%
2006년	34,759	7,300	21%

※ 침수피해면적은 소방방재청 재해연보(2010) 참조

■ 침수흔적도 작성을 추진하면서 개선하여야 할 사안은 무엇인가요?

침수흔적도는 국가차원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경감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침수가 발생될 때마다 작성되어야 할 국가의 중요한 정책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수흔적도를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각 지자체에서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재해경감대책을 수립코자 하면 침수지역에 대한 총괄적인 조사가 선행되고,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침수가 발생되면 침수흔적도를 전량 작성하도록 하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차원에서는 각 지자체의 침수흔적도 작성에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더불어 침수피해 현장을 3차원으로 측량하고 그 실세계 지형자료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5 원활한 침수흔적도 작성과 활용을 위하여 귀 회사와 한국방재협회는 업무협력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방재 관련 기술연구 및 정보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귀 회사와 한국방재협회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어떠한 협력사업으로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 침수흔적도 작성이란 단순히 도면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침수흔적 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총괄적인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 공사는 아시는 것처럼 전 직원이 측량전문가로 침수피해지역의 도면 및 관련 조서작성 부문에서는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수흔적보고서에 수록되는 침수피해 원인분석 및 향후 개선 대책 등 방재 전문 부문은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원 차원에서 우리 회사와 한국방재협회가 업무협력을 통해 회사가 미흡한 방재 전문 부문의 역할을 보완해 간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침수흔적도 작성의 근본 취지에 가장 부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Q.6 사장님께서 바라는 기후변화대비 재해경감을 위한 상호 기관의 역할과 바람은 무엇인지요?

- 우리 공사는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부문의 전문기관으로서, 한국방재협회는 국내 유일의 방재 전문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기후변화 대비 재해경감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각각 전문분야의 능력이 융·복합 된다면 정부의 방재정책에 보다 효과적인 협조 또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7 마지막으로, 사장님께서 자연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방재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 요즘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상이변으로 전세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자연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재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재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그 중심에 방재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과 국가를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밤낮없이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하시는 전국의 방재인 여러분의 무궁한 건승을 바랍니다.